

연결 데이터의 사용과 정보공유 플랫폼의 의의

허정원

바야흐로 데이터의 시대이다. 연구자나 데이터 수집자가 세심하게 설계하여 수집관리하는 데이터뿐 아니라 사물인터넷 등으로 인한 비정형적인 빅데이터까지 수집과 활용이 가능한 시대이다.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의 등장은 기존에 수집한 데이터의 활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존에 수집되었던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와 연계됨으로써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등, 연구자들이 생산한 데이터가 적절하게 수집·관리되어 새로운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오픈 데이터 디파지터리 구축을 구축하여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높이도록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및 공유 플랫폼의 중요성을 이미 절감하고 정보의 종류와 깊이, 활용도에 따른 다양한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정보공유 플랫폼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와 학문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정보센터 프로젝트를 통하여 세금데이터와 대학행정데이터를 결합/분석하여 증거기반 대학정책을 수립한 사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기초생활수급자 데이터와 기타 행정데이터를 결합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를 소개한다. 실제 학제적인 정보공유 플랫폼을 통하여 한 분야에서 수집된 정보가 다른 분야의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학문적 함의를 밝혀내는 과정을 통하여 정보공유 플랫폼의 실질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허정원은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를 졸업하였다. "이혼한 편모의 가족 및 사회관계망 지원과 이혼후 적응"으로 위스콘신 주립대학 사회복지 석사학위를 받았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재학 중 정부의 복지데이터를 관리하고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기초수급자데이터와 다양한 행정데이터를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여 기초생활수급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분석한 "The resource availability and Work First use among low-income mothers in North Carolina"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논문 연구과정 동안 학제간 연구 지원 (Interdisciplinary Research Fellowship)을 받았으며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복지제도 평가 및 연구 연례학회에서 신진학자 (emerging scholar)로 선정되었다. 이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Diversity and Engagement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다양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Date & Time: December 3rd (Tues.) 2019, 12:00-13:00

Place: Room 406, SNUAC (Bldg#101)